

매일 얻어터지고 밥 달라 아우성치고 공포에 '벌벌' "505보안대서 동물같은 생활 끔찍했다"

5·18재단 '피해자 1차 집담회' 첫 공식 증언 내내 깊은 한숨만 "가해자들 증언도 이어지길"

"태어나서 그런 배고픔은 처음이었습니다. 매일 조사받고, 얻어터지고, 또 밥 달라고 소리치는 동물같은 생활이었습니다."

24일 5·18기념재단이 주관한 '505보안대 1차 집담회'에 참여한 이삼자(56·영암군)씨는 증언 내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18살이던 38년 전 그날 505보안대에 끌려가 갖은 고초를 당했던 그는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며 505보안대의 실상을 낱말이 고발했다.

이씨는 이날 양기욱(58·전북 남원시), 차명숙(여·58)씨와 함께 38년 만에 처음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서 505보안대에 대해 증언했다.

이씨는 "1980년 5월21일 이후 '광주에서 시민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말에 시위대 버스에 올라탔다"며 "해남 등에서 총기를 받아 항쟁 기간 내내 들고 다녔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항쟁이 끝난 이후 시위 기념자들이 잡혀간다는 소문이 있어 친구집에 숨어 지낼 때도 많았다. 결국 2학기가 시작된 9월 초 형사들이 이씨를 찾아왔다. 총기 반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학생이었던 이씨는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모르 채 광주 505보안대로 향했다. 트럭에서 내리니 군인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무차별한 폭행이 이어졌다.

이씨는 "어린 마음에 사실대로 말하면 금방 풀려날 줄 알았다"며 "하지만 조사는 한달간 이어졌고 결국 범죄자가 됐다"고 말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무고한 시민을 잔인하게 고문했던 505보안부대에 관한 1차 집담회가 24일 오후 광주 서구 5·18기념재단 고백과 증언센터에서 열리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5·18 당시 이씨와 함께 활동했던 양기욱씨는 보안대의 첫 인상이 공포스러웠다고 말했다.

양씨는 "1980년 9월초 해남경찰서에 붙잡혀 한달간 조사를 받고 보안대로 이송됐다"며 "컴컴하고 좁은 계단을 지나 지하 조사실에 들어가니 문 맞은편에 몽둥이가 세워져 있었다. 너무 무서웠다"고 했다.

조사관은 있지도 않은 무기를 내놓으라고 양씨를 구타하는 등 괴롭혔지만, 양씨는 총기를 이미 반납한 상황이었다.

이후 양씨와 이씨는 상무대 영창에 갇혔고, 밥구경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다.

양씨는 "젊은 나이의 수감자들은 밥을 서로 더 달라고 아우성쳤다"며 "무죄를 호

소하기 보다는 밥을 더 주라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동물같은 생각이 들었다"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1980년 당시 505보안부대의 조직과 활동, 그리고 증언"을 주제로 열린 이번 집담회에서는 증언에 앞서 노영기 조선대 교수의 "1980년 당시 505보안부대의 조직과 활동" 발표와 전남대 5·18연구소 정문영 전임연구원의 토론도 진행됐다.

노 교수는 발표에서 505보안부대에 대해 보안사령부(당시 사령관 전두환)의 지방부대로 설명하며 실시간 첩보수집, 초기 강경진압 작전수립, 정보조작 등의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505보안부대 또 전남합동 수사단도 겸직하면서 5·18 가담자 2522명을 수사, 616명을 기소하고 404명은 구속

하는 역할도 했다.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5·18 직후에는 '광주내란 및 소요사건 수사결과보고 시나리오'를 작성해 "5·18은 10·26 이후 사회혼란과 시위가 난무하지 않을 정권 쟁취의 호기로 판단한 김대중이 광주 학생을 자국, 내란을 유발토록 한 것"으로 규정했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5·18 전후 505보안부대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은 은폐됐던 진실을 규명하는 작업"이라며 "이번 집담회를 계기로 505보안부대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차 집담회는 오는 31일 오후 2시 '505보안부대의 보존과 활용'을 주제로 5·18기념재단에서 진행된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그룹 유키스 멤버 훈 "뇌사상태 목포 초등생은 내 가족" "가해자측 웃고 떠든다는 말에 화난다"

SNS에 비난 글 올려 논란

목포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폭행사건(광주일보 2018년 10월 24일자 6면) 피해자의 가족이라고 밝힌 남성그룹 유키스 멤버 훈이 가해자 가족들의 행동을 비난하고 나서 논란이다.

훈은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목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 아이가 동급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뇌사 상태로 의식불명 상태다. 뇌사 상태인 아이는 내 가족"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식이 돌아와도 3~4세 정도의 정신 연령"이라며 가해자측 가족이 증원자 앞에서 웃고 떠든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화가나고 속상하다. 지금 가족들은 초등학교의 일어난 이유로 조사도 위로도 받지 못하고 있다. 상태가 심각한데 아무런 처벌도 안되고 학교 측에선 아이들이 불안해한다며 이렇다 할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더이상 가족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얼른 의식이 돌아와주길 바랄 뿐"이라고 전했다. 24일 목포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9시 50분께 목포의 한 초등학교 복도에

서 5학년 A군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군은 119 구급대의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자신이 A군의 이종사촌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이 'A군의 동급생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놀렸다는 이유로 A군을 폭행했다. A군은 심정지 상태였고 심폐소생술로 심장기능은 회복했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해 의식이 없는 상태'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목포=김병관 기자 dss6116@

구절초 공원 교량 공사 비리 정읍시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정읍 구절초 테마공원 교량 공사 비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정읍시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24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밤 11시부터 1시간 동안 정읍시의회 A의원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A의원은 교량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하고 공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증거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A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정읍=박기섭 기자 parkks@

군 생활관 동기 6명 성추행 20대 집유 3년 선고

군 복무 시절 생활관 동기 6명을 상대로 성추행과 희롱을 반복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에게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의 자긍심을 상실시키고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세균검출' 청정원 "캔햄 전 제품 생산·판매 잠정중단"

회수 대상 제품 전량 환불 가능

세균이 검출된 '런천미트'를 판매한 대상 청정원이 캔햄 전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대상은 24일 회사 홈페이지에 입장해 대표 명의로 게시한 사과문을 통해 "당사 '런천미트' 건으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해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원인 규명 및 안전성 확보까지 당사 캔 전 제품의 잠정적 생산 및 판매 중지를 통해 고객 불만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이 보관하고 있는 회수 대상 제품에 대해서는 전량 환불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5월 15일까지인 제품이다.

아울러 고객 불안 해소를 위해 해당 제품 외에 자사 캔햄 전 제품에 대해서도 원할 경우 환불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3일 대상 청정원의 '런천미트' 제품 중 2016년 5월 17일 제조한 제품에서 세균이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환불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상 고객센터(☎080-019-9119)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차 털다 '차 도둑' 된 중학생...수십km 추격전

나주시 흥진 차 몰고 질주 경찰, 고흥 검문소서 검거

흥진 승용차를 몰고 경찰과 2시간 이상 추격전을 펼친 중학생이 붙잡혔다.

나주경찰은 24일 절도와 무면허 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박모(14)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박군은 지난 22일 오전 11시께 나주시 이창동 한 도로변에 주차돼 있던 산타페 승용차를 몰고 달아났다. 박군은 경찰조사에서 이미 잠기지 않은 승용차 안에 귀중품이 남아있었는지 뒤져보다가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박군은 흥진 차를 40여km 떨어진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까지 운전한 뒤 유모(14)군 등 도래 '폐북 친구' 3명을 태우고 자신이 사는 고흥으로 향했다.

하지만 박군이 운전한 차량은 얼마가지 못하고 도난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에 적발됐고, 정차 지시에도 30여km를 더 도주했다. 박군은 결국 범행 2시간 20분 만에 고흥군 남양면 탄포검문소에서 검거됐다. 중학교 2~3학년생인 박군 등은 평소 몰려다니다 주차된 차 안에서 공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박군 외 나머지 3명도 차량털이(절도) 혐의로 입건해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

'도도맘 소송취하서 위조' 강용석 변호사 징역 1년 '법정구속'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졌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마씨의 남편이 낸 손해배상금 1억원 청구소송을 취하할 목적으로 인감증명위장 등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49)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24일 "변호사라는 지위와 기본 의무를 망각하고 중요한 문서를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며 "이런 행위로 아내의 불륜에 이어 추가 고통을 얻은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

○-금고 이상의 형 선고가 확정될 경우 변호사법(5조)이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해 변호사 등록마저 취소될 처지에 놓인 강 변호사는 이날 구속수감되기 위해 법정을 나서는 과정에서 "항소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예"라고만 답변. /연합뉴스

2019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입생 모집

사랑과 감사의 64년 1954~2018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학 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단위	수시	정시
인문	신 학 과	30	16
	한국어교육학과	3	1
사범	유아교육과	8	2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교정행교육상담학 전공)	31	3
예능	음 악 학 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3	7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 2018. 9. 10(월) ~ 14(금) • 전형일 : 2018. 9. 28(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18. 12. 29(토) ~ 2019. 1. 3(목) • 전형일 : 2019. 1. 10(목)

대 학 원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 학 원	과 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65	
		신학과(Ph.D.)	6	
일반대학원	박사	목회학과(D.Min.)	2	
		유아교육학과(D.Ed.)	5	
		사회복지학과(D.S.W.)	5	
		상담심리치료학과(D.C.S.)	5	
		코칭심리학과(D.Psy.)	5	
		통합예술치료학과(D.C.S.)	15	
		통합예술치료학과(D.C.S.)	10	
		석사	신학과(Th.M.)	25
		석사	유아교육학과(M.Ed.)	8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15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사회복지학과(M.S.W.)	2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평생교육학과(M.Ed.)	10	
		한국어교육학과(M.Ed.)	20	
국제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6	
		실용음악학과(M.A.)	6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 추후 공지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지사로 36

입학문의 ▶ 학부 062) 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